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을 위한 DPC 홍보활동

DPC's PR Activities to Promote Domestic Database Industry.

1. 序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정보산업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데이터베이스 하부구조(Database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가 미래사회에 있어서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정보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93년 2월 설립되었다.

설립후 그간 국책사업으로서 각종 정책연구 뿐만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련 표준화 추진,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보금 및 국내 데이터베이스 실태조사를

통한 업계의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백서의 발간 등 홍보 및 출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도 정보사회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달의 주제와 특집이 “데이터베이스 마인드 확산”인 만큼 센터가 펼치는 이 분야의 활동 내역을 소개함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범국민 마인드 확산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산업 부흥에 활력을 넣고자 한다.

2. 情報誌 “데이터베이스월드” 발간

국내외의 급속한 정보환경의 변화, 즉 정보의 신속한 확보, 축적, 가공을 통한 효율적 이용이 산업경제 활동의 주요소로 부각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 근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하다 할 데이터베이스 하부구조를 조기에 확립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 전문 월간정보지 “데이터베이스월드”를 발행하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월드”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 필요성, 이용의

효과 등을 소개 강조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이용마인드를 확산 촉진시키고 정책의 개발, 관련 산·학·연의 상호 정보교환의場 및 소식지등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다양한 연구논문도 수록하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3년 6월 창간이래 금번 9월 호까지 통권 제28호를 빠짐없이 발간하면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월드의 주요수록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산업 정비·육성
· 발전 등 정책적 및 방향제시적 내용
- 데이터베이스기술(DBMS, 제작, 유통, 이용기술 등) 동향과 응용방법 및 사례
-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마인드확산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내용
- 관련 업계 및 이용자 등의 제언, 사례
-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소개
-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산업에 대한 주요 통계, 동향/분석 등
- 국내외 뉴스, 업계동정 등 소식외 기타

이러한 내용들을 매월 주제와 특집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그때그때 적시에 시사성 있도록 내용을 기획하여 독자에게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월드”는 그동안 200여명의 전문 필진의 발굴, 매월 1500여 정기구독자의 확보 등을 통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해외데이터베이스정보”誌 발간

월간정보지 “데이터베이스월드”와 함께 “해외데이터베이스정보”誌를 발간함으로써 국내산업계의 해외데이터베이스산업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 8월부터 주간단위로 북미·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 동정을 국내 산업계 및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는 “해외데이터베이스정보”는 국내 관련 사업계가 보다 국제동향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세미나 개최

정책적, 제도적, 사사적 논의와 신기술동향 등을 발표, 논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세미나도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중요한 홍보활동이 되고 있다.

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지난 6월 19일 KOEX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9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세번째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세미나들은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관련 산·학·연·관의 컨센서스 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기틀 마련과 함께 효과의 극대화를 도출해 내는 홍보 이벤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동안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도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표준화 문제, 정보이용과 수요기반 확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데이터베이스의 질적·양적 확충방안 등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반적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이에 관한 마인드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 데이터베이스 전시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관련자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를테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한 일반인 또는 정보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데이터베이스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선 별도의 강한 소구활동이 요구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전시이벤트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전시회란 단순히 특정상품을 일정한 한 곳의 장소에 진열하여 놓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시회의 효과라 일컬어지는 1851년 영국산업박람회가 20세기 문명을 형성하는 힘의 근원이 된 이후 공급자(생산자)와 수요자(소비자)를 다수 대 다수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및 산업경제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로의 대변혁기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적인 충격의 완충역할과 새롭게 전개되는 사회에 대한 상호 알림의 마당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전시행사가 중요한 홍보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전시회는 데이터베이스의 복합성 및 총체성으로 인해 어느 한두 부문·기능만이 노력해서는 정보선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산·학·연·관 등 관련자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부문별·기능별로 국민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전달되는 그래서 단기간에 그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대의 홍보이벤트로서 그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인드가 폭넓게 확산되지 못했던 '93년부터 개최되어온 서울 국제데이터베이스전시회는 올해로서

세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가지 미비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첫번째 행사에는 공식 등록된 참관인원만도 3만6천여명, 두번째 행사에는 5만5천여명이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전시회를 찾았다. 불과 3년의 짧은 경륜이지만 관심층의 폭넓은 확산과 중대는 데이터베이스 마인드의 확산이 가일층 진전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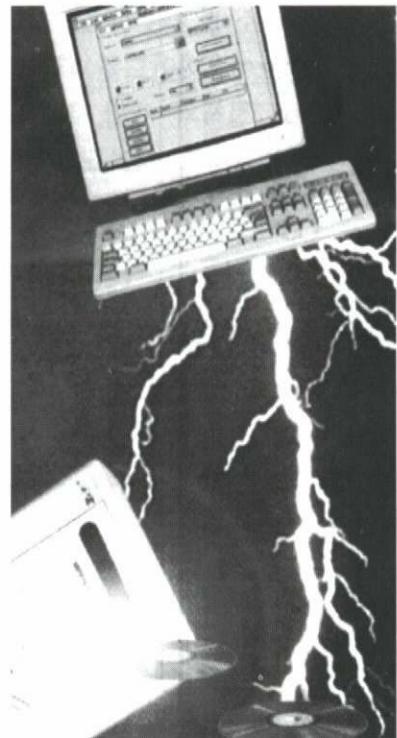
6. 해외데이터베이스 참관

정보통신분야는 글로벌(Globalization)개념이 필수특성이다.

우리나라가 조기에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국내 전시회를 통한 홍보활동 못지않게 모든 부문·기능·주체의 노력의 결집인 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전시회를 살펴봄으로써 생생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매년 매 전시회마다 관심있는 산·학·연·관의 참관객을 모집하여 견학의 기회를 갖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중요한 홍보활동의 하나로써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7. 맷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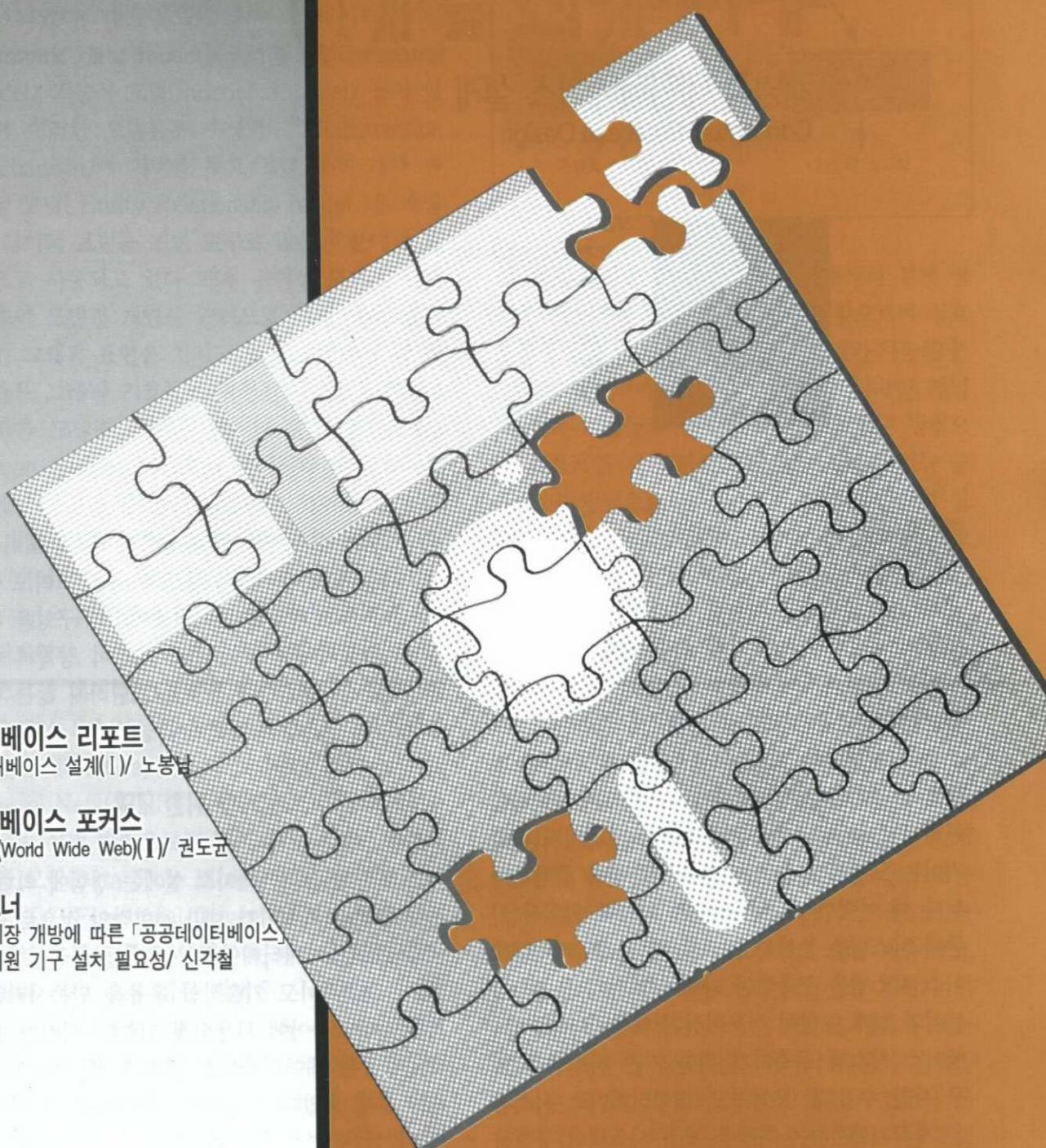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지원 육성



하며, 일반국민의 정보이용활성화를 촉진하여 정보사회의 조기 구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래서 모든 사업활동이 그러한 방향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센터만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된 주요 홍보활동에는 관련 산·학·연·관 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충만할 때 모든 국민에게 있어 데이터베이스 마인드는 조성 될 것이고 이에따라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이 부흥 활성화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미래 고도정보사회에서 정보선진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DIC**

기획논단



■ 데이터베이스 리포트

- 데이터베이스 설계(Ⅰ)/ 노봉남

■ 데이터베이스 포커스

- WWW(World Wide Web)(Ⅰ)/ 권도균

■ 법제코너

-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기술지원 기구 설치 필요성/ 신각철